

또 하나의 Vol. 48 나 우리

www.plankorea.or.kr



행복을 주는 사람!!

안녕하세요. 플랜코리아의 가족이 된 배우 고은아입니다.

지난 4월 플랜을 통해서 세네갈을 방문했습니다. 예전부터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아프리카에 가자는 플랜의 제안에 잡혀있던 영화 촬영 스케줄을 뒤로 연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만나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울기 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로...

직접 세네갈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오염된 흙탕물을 마시는 아이들,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워 하는 아이들,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니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하고, 어떻게 웃음을 선물해줄 수 있을지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 때에 한 아이가 축구공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 같이 축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안전하게 보았는데, 아이들이 축구를 어쩌나 잘하는지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함께 공을 차고 뛰어다니면서 저는 아이들이 웃음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그들 옆에 있다는 것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플랜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힘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앞으로 플랜의 가족으로 지구촌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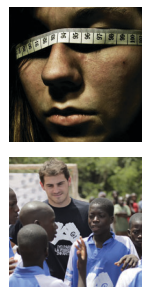
2009년 9월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고은아 드림


고 은 아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 입니다.

플랜은 73년 전통의 국제아동후원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입니다. 세계 최대 개발원조단체인 플랜은 비종교, 비정치, 비정부의 국제기구로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8개국을 후원국으로 하여 전세계 48개국 150만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02 **행복을 주는 사람** • 홍보대사 배우 고 은 아
- 04 **지구촌을 간다** • The Change 고 윤 정
- 알려드립니다**
- 06 플랜코리아 사무실 이전
- 07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 08 **플랜캠페인** • 리본캠페인
- 10 **플랜클럽**
- 12 **플랜지구촌 꿈터** • 성남고 2학년 김 승 환
- 14 **플랜가족** • 자원봉사자 서 원 빈, 서 예 빈 남매

나눔의 행복

- 16 AK · CGV 와 함께 하는 즐거운 기부 캠페인
- 17 롯데 백화점- 베트남 롯데스쿨

플랜 NEWS

- 18 플랜 코리아 소식
- 20 플랜 인터내셔널 소식
- 21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모금함 · 특별후원금 · 특별후원자 · 신규 어린이 후원자

고운정 (Tabor High school 1학년 재학)

The Change, 네팔에 가다.

이색적인 색깔이 칠해진 건물들을 넘어 비행기가 착륙했다.

처음 들리는 언어, 새로운 사람들, 색다른 공기, 이러한 것들이 네팔 공항에 첫 발걸음을 하자 살며시 스며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또한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이 곳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담아가기 위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네팔, 몇 달 동안 우리가 봉사활동 해 온 활동의 과실이며 마무리이자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봉사와 나눔을 베풀기 위한 시발점이기도 한 곳이다.

강화도를 걷는 것으로 우리의 봉사활동은 시작되었다. 우리가 1미터를 걸을 때마다 100원의 후원금이 모아졌고, 그 후원금을 모아 네팔에 학교를 지어주기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걷고 있는 우리 모두 왜 걸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걷긴 걷지만, 다들 속으로 '이렇게 힘들게 걷는 것이 어떻게 봉사가 되지?' 하는 눈치였다. 나 역시 그저 걸으면서 후원금을 모은다고 생각할 뿐, 왜 굳이 강화도를 '걸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후원금은 걷는 행위 없이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테니깐 말이다. 강화도에서의 첫 봉사활동이 그렇게 지나가고 우리는 모자란 자금을 위해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여 결국 우리가 계획했던 작지만 큰 목표인 네팔 방문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지어진 곳, 네팔에 지어질 유치원들을 보기 위해.

한가지 예상치 못한 것이 있다면 네팔의 도로 상황. 빈곤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우선 영양부족이라든지 물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네팔의 교통 상황 또한 '빈곤'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유치원들을 방문하기 위해선 복잡한 도심을 지나고 난 후에 산을 넘어가야 했다. 아직 터널이 뚫리지 않아 높고 험한 산을 빙 둘러 가야만 했다. 당연히 아스팔트 길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인디애나 존스의 일행이라도 된 것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쉼 없이 흔들리는 차를 타고 여성협동조합이 있다는 마을에 도착하였다. 잠에서 덜 깬 나와 지쳐있던 아이들 모두 차에서 내리자마자 잠과 피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본적 없는 광경과 받아본 적 없는 환대에 다들 흠칫 놀랐던 것이다.

아름다운 꽃밭이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뭔가 가슴이 뽐뽐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맙게 우리를 환대해 주었다. 아름답게 금빛과 붉은빛으로 치장한 여자들과 아이들, 여기저기서 우리를 보러 일하다 잠시 들린 아저씨들. 약간은 상기되어 앞으로 걸어가자, 정말로 인형같이 생긴 한 여자아이가 방긋 웃으면서 'welcome' 이라고 하고는 아주 섹노란 꽃들로 엮은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출렁이는 금빛의 붉은 물결, 꽃 내음, 웃음소리, 선한 눈빛들,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진 상태로 계속 앞으로 걸어나갔다. 마을에



서는 자신들을 소개한 후 여성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주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환대 공연. 땀 흘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이들도 나도, 공연이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걱정도 커져갔다. 사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팔 사람들처럼 '멋지고 준비가 잘된' 회답 공연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미안함으로 남아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린다. 그곳에선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무슨 공연을 할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접대할지 하며 설레여하는 모습이 너무 눈에 선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 아쉬움과 고마움,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묘한 감동을 뒤로 하고 유치원과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떠났다.

봉사는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봉사다. 덜경거리는 차 안에 몸을 맡기며 생각에 젖었다. 막상 와보니 그들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아 보였고 부족한 것들도 더 많이 보였다. 그들의 환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낯선 분위기와 사람들에게 받는 따뜻한 미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다. 생각보다 피부에 와 닿게 하는 봉사란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아주 쉬운 것이기도 하였다. '웃음', 이 웃음 하나로 그저 눈빛을 맞춰가며 미

소를 띄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효과를 낸다. 그게 마음으로 통하는 봉사고 마음으로 느끼는 봉사다. 네팔에 집을 수십 채 세워준다 하어도 그들의 선한 눈빛

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봉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강화도에서 걸은 게 헛되지 않았고, 그때 몰랐던 그 활동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뭐든지 쉽게 얻어지면 쉽게 잃는 법. 우리가 힘들게 걸어 모은 돈, 얼마나 좋은 곳에 의미 있게 쓰여지는지 그로 인해 이 곳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들은 우리가 유치원을 세워주었다며 고마워하지만, 난 그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해준 곳.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다.

헤어지기 쉽지 않았던 곳...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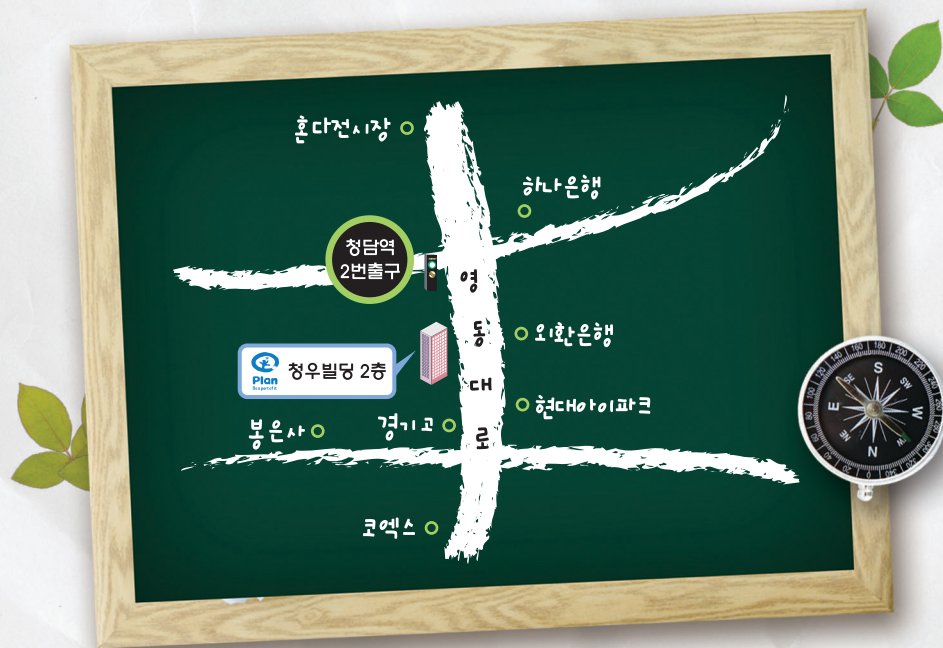
그곳에서 피었던 화려한 색깔의 꽃들과 붉은 빛 옷의 물결을 잊지 못할 것이다.

플랜코리아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2009년 9월 19일 (토) 플랜코리아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역과 근접하지 않아 방문하시는 후원자 분들이나 자원봉사자 분들께 찾아 오시는 방법을 알려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금은 협소하여 마음 편히 방문하시기 어려우셨는데, 이제는 찾아 오시기 쉬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께 문 활짝, 마음 활짝 열어 두겠으니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이제 아동에게 보내는 편지 등의 우편물은 아래 새로운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02-790-5436)와 팩스번호(02-790-5416)는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주 소] 135-87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8-4 청우빌딩 2층

[교통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 출구 도보 1분

버스 경기고등학교 하차 301, 401, 2415, 3414, 4419

www.plankorea.or.kr



플랜코리아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 플랜코리아 홈페이지(www.plankorea.or.kr)가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하였습니다. 후원자님들께서 플랜의 활동과 소식을 좀더 편하게 접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였습니다.

— 새롭게 선보이는 홈페이지는 국제아동후원단체인 플랜코리아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메뉴에 '일하는 곳(where we work)'이라는 섹션을 추가하여 전세계 66개국 (후원국 18개국, 수혜국 48개국)에서 활동하는 플랜이 각 대륙별로 어떤 사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을 하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플랜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하여 플랜의 소식과 활동 등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전할 예정이니, 후원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리본 캠페인

플랜코리아 후원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리본 캠페인

플랜코리아와 함께 하는 리본 캠페인

풍성한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지구촌 어린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켜주고, 아동 후원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리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리본의 의미는?

• 리본(Re:born)은 어린이들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신규 후원자님의 후원 시작으로 현재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개발국의 어린이들이 이제는 꿈을 키울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리본(Re:born)은 신규 후원자님의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기존 후원자님을 통해서 새롭게 아동후원을 시작하시게 되는 후원자님은 기부활동을 하는 기부자로, 아동후원을 하는 아동후원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 리본(Ribbon)은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기존 후원자분들께서 새로운 후원자님과 저개발국의 어린이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본 캠페인의 진행 기간?

• 2009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 (50일간)

리본 캠페인 참여방법

- 플랜코리아의 홈페이지(www.plankorea.or.kr)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리본 캠페인'에 대한 이메일을 보낸다.
- 플랜코리아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나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달아 '리본 캠페인'을 알린다
-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아동후원을 하면서 느꼈던 보람을 이야기 하며 만난 사람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플랜코리아 및 '리본 캠페인'을 소개한다.
- 플랜코리아에 전화(02-790-5436)를 걸어 플랜소개 자료 및 후원안내자료를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신규 후원자 후원신청시 가입동기에 '지인소개'를 선택 후 기타에 추천인 성함 기재 바랍니다.

리본 캠페인도 참여하고 선물도 받고!

- 후원자님의 추천을 통해서 10명 이상이 후원 신청을 하게 될 경우
 - 최다 신청 후원자 한 분에게 Plan 사업장 방문의 기회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2010년 8월 중, 아시아권 사업장 방문시 동행)
 - 추천을 통해서 세 분께는 i-river mp3를 드립니다.
- ※ 후원자님의 추천을 통해서 1명 이상이 후원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리본캠페인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플랜 기념품을 드립니다.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Tel. 02-790-5436 www.plankorea.or.kr

지구촌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이 키워나갑니다. 리본이 되어주세요.



Plan Club

플랜코리아의 개발과 나눔, 교육 부분을 담당하여 진행 할
‘플랜클럽’을 소개합니다!!

플랜코리아에서 최근 개최한 “이벤트 아이디어 올리고 상품 받기”,
 “나의 후원 어린이 그리기 대회” 이벤트의 기획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플랜클럽입니다.

플랜클럽은 전 세계의 문화, 교육,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코너입니다. 2008년 7월 24일 플랜클럽 1기를 시작으로, 2009년 2월 6일 플랜클럽 2기가 결성되어 온라인에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플랜의 활동과 48여 개 후원국의 문화, 교육, 개발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한 오프라인으로 진정한 나눔의 의미와 기쁨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후원자 대상 이벤트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해왔습니다.



4인이 넘는 강봉를 담당하고 플랜클럽의 일원이 된 자원봉사단 멤버들

플랜클럽 자원봉사단의 새 얼굴이 된 플랜클럽 3기의 첫 모임이
 지난 8월 26일에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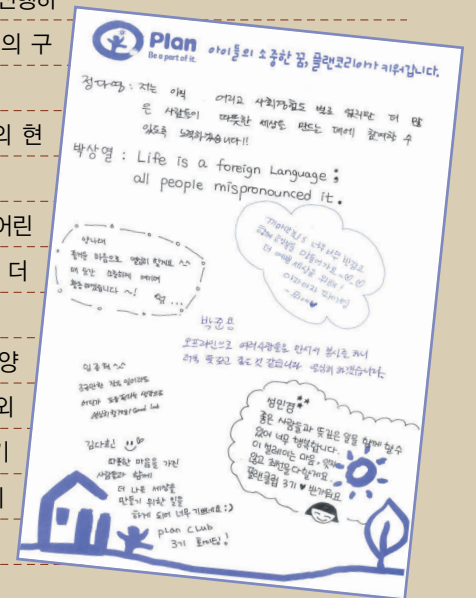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딘 플랜클럽 3기를 소개합니다.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된 모임은 우선 자원봉사단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하며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플랜클럽에 대한 설명과 플랜클럽 3기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홈페이지의 플랜클럽 원고 작성 및 월별 후원자 대상 이벤트 기획의 구체적인 일정소개가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후 자원봉사단 교육 및 단합을 위해 아동인권과 빈곤국가의 현실을 담은 총무로 국제 영화제 상영작 “8”을 관람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 멤버들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서먹함을 줄이고 빈곤국가의 어린이를 돕는 플랜코리아와 플랜클럽의 활동, 나아가 국제 구호의 필요성을 더욱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새내기 대학생에서부터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현재 플랜 후원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디어 활동, 외국어 실력을 두루 갖춘 대학(원)생이 다수 있어 앞으로의 멋진 활동이 기대됩니다. 생앞으로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 시간을 플랜과 후원 가족을 위해 사용하게 될 플랜클럽 자원봉사단 3기의 활동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8 이란?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전 세계적인 약속인 8개의 밀레니엄 개발목표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다룬 옴니버스 영화

[UN이 채택한 8가지 밀레니엄 개발목표]

- | | | |
|------------------|---------------------------|-----------------|
| 1. 빈곤과 기아 퇴치 | 2. 초등교육의 완전 보급 | 3. 성평등과 여권 신장 |
| 4. 유아 사망률 감소 | 5. 임산부 건강 개선 | 6. 에이즈 등의 질병 퇴치 |
| 7.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장 | 8. 위 의제들과 관련한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 | |

플랜지구촌 꿈터

성남고 2학년 김 승 환

내가 다니고 있는 성남고등학교는 매년 캄보디아에 우물을 지어준다.

우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나는 사진으로만 보던 우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곳의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였고, 어린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선뜻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캄보디아에서의 봉사
활동이 시작되는 날, 그 첫걸음으로 우리는 플랜 캄보디아지부로 가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플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플랜은 아동구호단체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플랜 캄보디아지부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우리의 봉사정신을 다시 불태웠다.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1937년 12월 중군 기자였던

존 랭던 데이비스와 에릭 머거리지가 스페인 내전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스페인 어린이를 위한 Foster Parents Plan 을 설립했다고 한다. 이후 1940년대에는 지원 대상을 유럽전역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고아와 모든 어린이로 확대했고 1950년대 유럽의 부흥으로 각 개도국으로 활동영역을 넓혔다고 한다. 1953년 양친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고, 2002년 UN에서 국제NGO임을 선언, 플랜인터내셔널로 명칭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플랜에 대한 여러 슬라이드와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는 400달러를 기증하여 플랜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플랜 캄보디아지부를 떠나 2년 전 우물을 설치하기로 계약했던 마을로 출발했다. 선배들은 우물을 설치할 터를 보거나, 작업 중인 우물 사업 현장만 보고 왔다고 하던데, 우리는 운이 좋게 완성된 시점에 방문하는 것 이라고 한다. 마을에 도착하기 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마을 회관에서 점심을 해결했는데 주지사 쯤 되는 분께서 우리의 방문을 환영해 주셨다. 그렇게 다시 비포장도로를 안내심과 함께 건디며 마을에 도



▲마을대표와 우물 앞에서 사진. 이제 시작인 것이다.



착하니 모든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반겨주고 아이들은 환영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환영했다. 이들에게 우리의 방문이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했다.

우물 앞에서 현관 기증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볼거리와 구호물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준비한것은 한국, 성남고 소개와 태권도 무술시범, 탈춤, 투호와 제기를 이용한 체육대회 등이었다. 조금은 초라해보일지 몰라도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즐겁게 봐 주었다. 내가 속한 조는 탈춤을 추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탈춤을 추는 우리를 보자마자 계속 웃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쓴 가면의 모양이 그렇게 웃겼던 것 같다.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춤을 끝냈고 가면을 벗고 나니 불어오는 바람에 시원함을 느꼈다. 시원한 마음만큼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체육대회하면서 구호품을 나눠주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날씨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다. 구호품을 나누어 줄때 아이들은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는지 선뜻 다가오지 않았다. 나도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마냥 어색함으로 아이들을 바



이따처럼 찍은 가족사진일거 같은데 소감이 어떨까?

라볼 수는 없었기에 아이들 한명 한명을 웃으면서 바라보니 아이들은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건네주고 나니 금세 바닥이 나버렸다.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바로 구할 수 없고 아파도 쉽사리 병원에 갈 수 없고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궁금해진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즉석사진기를 이용해 현지 가족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그들은 사진을 받고 굉장히 신기해했다. 아마도 자신들의 가족과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아마 경험하기 힘든 것이리라.

사실 우리가 한것은 구호품을 나누어 주거나 준비한 공연을 한 것뿐이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처음 만난 아이들이지만 절대 잊지 못할 웃음을 건넸었다. 나 또한 잊지 않으리라.

이후 캄보디아에서의 남은 날이 나의 인생의 얼마나 큰 추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을지 상상해보며 봉사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Plan Family Interview

· 자원봉사자 서예빈 · 서원빈 남매



서예빈(15, The Lawrenceville School 10학년),

서원빈(19, The Lawrenceville School 12학년)

자원봉사자는 남매로,

함께 번역봉사를 하고 있다.

미국 유학 중에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들은

함께 자원봉사를 하며 뜻 깊은

방학을 보냈다.

1. 플랜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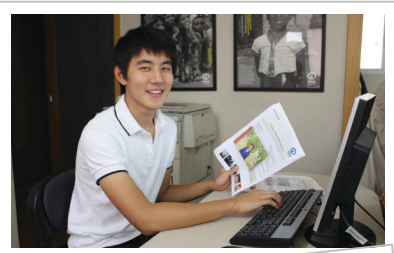
예빈: 미국에 있을 때, 방학에 한국에 들어오면 어느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좋을지 어머니께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린이와 관련된 봉사를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플랜코리아를 추천해주셨어요.

원빈: 저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평소에 어린이와 관련된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 방학 때는 학교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을 가서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문화도 전해주는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동생이 플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도미니카의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저와 함께 했던 아이들과 같은 어린이를 돕는 일이라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남매가 같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통은 통은 무엇이 있나요?

원빈: 번역을 할 때, 동생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니 훨씬 더 재미있게 봉사할 수 있어요. 또 번역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편하게 물어보면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빈: 오빠랑 같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면 기분이 좋아요. 같이 봉사를 하면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오빠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 따뜻한 후원이야기를 들려주실 후원자님께서는 02-790-5436이나 kno@plankorea.or.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해주신 후원자님께서는 인터뷰 사진을 예쁜 액자에 넣어 보내드립니다. >

3. 번역봉사를 통해서 지구촌 어린이 빈곤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원빈: 아동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면서, 여성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때마침 방송에서 이슈가 되어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빈: 번역을 하면서 저개발국의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관심부족으로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4. 번역봉사를 통해서 플랜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원빈: 한번은 플랜의 역사에 대해서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놀랐어요. 사실 플랜은 이번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단체라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5. 번역봉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원빈: 편지를 번역할 때, 우리말 고유의 감정적인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전달하고 싶은데 그 점이 참 힘들어요. 후원자가 후원아동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영작하는 과정에서 후원자의 감정이 사라질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6. 번역봉사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같은가요?

예빈: 편지를 번역할 때 영어나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휘력이 더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도 하고 공부도 되니까

7.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원빈: 번역이 매끄럽게 잘 되었을 때요. (*) 자연스러운 문장을 보면 참 뿌듯해요. 또 제가 번역하는 것들이 웹사이트나 소식지 등에 올라갈 때 보람을 느껴요.

예빈: 편지를 번역할 때 후원자나 아동이 직접 받고 행복해할 것이 상상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한번은 후원자님이 아이들에게 보낼 선물 박스를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일 인상에 남아요. 정성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통해서 후원자님들이 후원아동을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8. 예빈이와 원빈이에게 봉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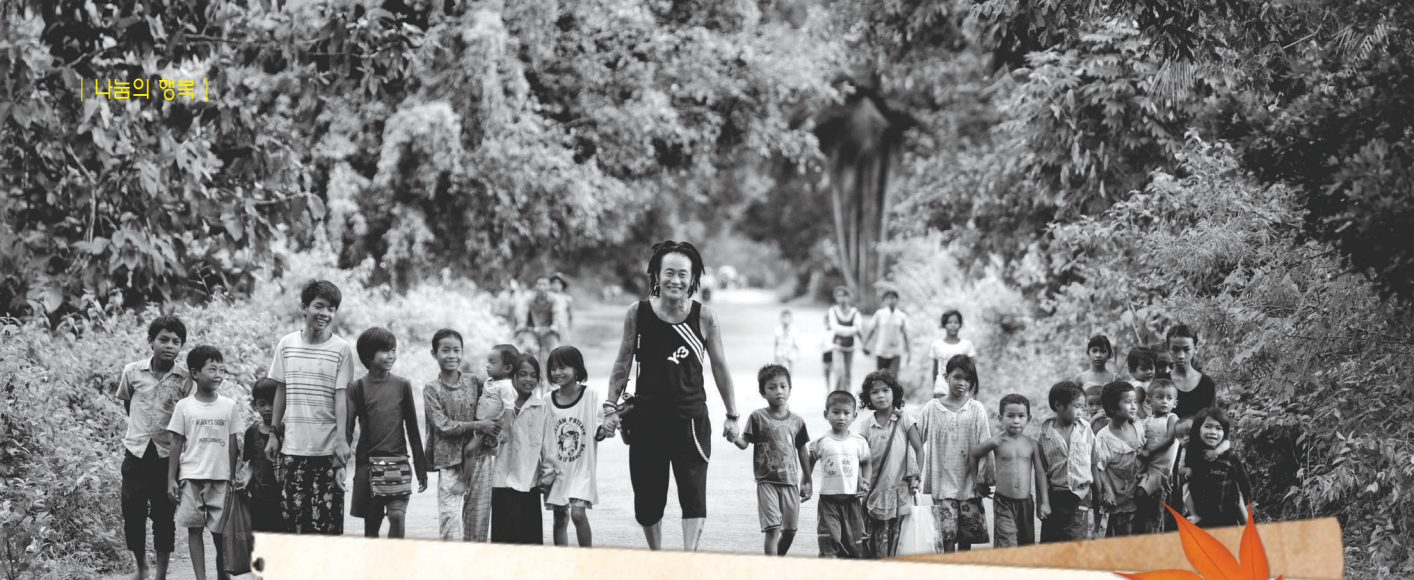
원빈: 봉사는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주기만 한다는 생각만 하면 쉽게 지치고, 즐겁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봉사하는 만큼 제가 얻어가는 것... 이를테면 행복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왔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이 퍼져나가는 느낌처럼 저의 작은 행동이 좋은 영향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빈: 제가 가진 것, 제 안에 있는 마음, 사랑을 제일 쉽게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원봉사인 것 같아요.

9. 마지막으로 플랜의 후원자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원빈: 편지를 번역하면서 느낀 것은 편지 하나하나가 형식적인 것이 없이 사랑이 묻어났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직접 가서 만나면서도 가지기 힘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과 축복받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빈: 편지를 번역하면서 후원자분들께서 후원하시고 계시는 어린이들을 정말 자기의 자녀같이 여기신다는 느꼈어요. 아이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느껴질 때마다 존경하게 됩니다.



AK
PLAZA

CGV

와 함께 하는
즐거운 기부 캠페인

유통부문의 선두주자 AK와 글로벌 멀티플렉스 CGV가 9월 22일부터 한달 동안 즐거운 기부 캠페인을 펼칩니다. 그 동안 기부라는 것이 하기 어려운 것, 큰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것,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에는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김종만 사진작가가 참여하였습니다. 김종만 홍보대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사진'을 통해 지구촌 빈곤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 이런 즐거운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어린이들을 돕는 것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AK와 CGV는 이러한 즐거운 기부 문화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30~31일에 '사랑의 1박 2일 영화시사회'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자 중 200명을 선정하여 1박2일간 영화 7편을 연속으로 관람하는 방식입니다. AK는 시사회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최대 1천 만원을 플랜코리아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울러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캐나다 여행권, 모뉴엘 넷북,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영화관람권과 AK몰 인터넷 쇼핑 기프트콘도 제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지구촌 빈곤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CGV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 이상의 감동을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AK는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AK·CGV와 함께 하는 즐거운 기부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www.akmall.com / www.cgv.co.kr / www.nate.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OTTE

롯데백화점

베트남 롯데스쿨

베트남 손키 중학교는 전교생이 462명이지만, 실제로 등교하는 학생수를 학교측에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중학교에 진학한 상당수의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다. 이는 집에서 출발하여 두 세시간은 기본이고, 길게는 12시간씩 걸어야 학교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을 넘고 강을 헤엄치고, 길을 걸으면서 옷을 말리며 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있다. 우기에는 강물이 불어나고 산사태가 나거나 도로가 유실되어 등학교길에 다치거나 학교에 올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초 롯데백화점은 손키지역 중학생들의 사정을 듣고 이곳에 기숙사를 세워주기로 하였다. 200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개월 동안 약 1억 원을 기부하여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손키 중학교를 리모델링하고 462명의 아이들을 위해 기숙사를 지어주었다. 올 9월 4일에는 완공식을 가졌다.

이를 위한 비용은 롯데백화점의 지원뿐만 아니라 명품관인 에비뉴엘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자선 경매와 기부로 마련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작년 4월 '김종만 작가의 에비뉴엘 고객 사진전'을 시작으로 '모엣 & 상동 자선 캠페인 패키지 판매 및 자선 경매' '조세현 작가 사진전 등

을 통해 모은 수익금과 VIP고객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손키 중학교를 완공할 수 있었다. 이는 "고객참여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롯데백화점의 노력으로 기업과 고객이 함께 만들어진 아름다운 활동이었다.

롯데와 고객의 노력으로, 지어진 지 25년이 넘어 낡았던 교실이 새롭게 달라졌다. 손키 중학교는 지원에 감사하며 '롯데스쿨'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 기숙사 외벽에는 롯데와 고객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학교를 오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기가 되면 등교할 수 없었던 학생들도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숙사 건립에 감사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리모델링과 함께 롯데에서 지원한 기숙사는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의 자량이 되고 있다.



플랜코리아 소식

아코르 엠베서더 호텔 One Dollar Love for Children 기금 전달식

7월 23일 오후 강남구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아코르 엠베서더 호텔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기금전달식을 가졌다. 아코르 엠베서더는 2008년부터 6개의 계열 호텔(소피텔엠베서더서울, 노보텔엠베서더강남, 노보텔엠베서더독산, 이비스엠베서더서울, 이비스엠베서더명동, 이비스엠베서더수원)에서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 프로젝트를 펼쳤다. 'One Dollar Love for Children'이라는 이름으로 객실 이용 고객이 1달러 기부에 동의하면, 체크아웃 시 계산서에 자동으로 1달러가 추가되어 지구촌 빈곤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전달된 기금은 베트남 수안 광 지역 어린이를 위해 사용된다. 중학교 내의 도서관에 필요한 책, 책장, 책상 등을 지원하여 베트남의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EXR, 캄보디아에 2호 Progressive School 건립 약정

지난 6월 30일, EXR(대표 민복기)은 플랜코리아에 2호 EXR Progressive School 건립후원을 약정하였다. EXR은 177명의 어린이들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1호 Progressive School을 2008년 11월에 완공한바 있다. 이에 더 많은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2호 Progressive School 건설을 지원하게 되었다. EXR의 건립 후원에 따라 플랜은 캄보디아 캄퐁참 지역에 초등학교를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가 완공되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900명의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 The Change 강화도 걷기 행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The Change는 방학을 맞이하여 지구촌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걷기'를 기획하였다. 이번 걷기행사는 학생이 1m씩 걸을 때마다 학부모가 100원씩 기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The Change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동안 강화도 해안도로를 따라 90km를 걸으면서 네팔에 유치원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네팔을 방문하여 유치원 건립을 위한 답사를 다녀왔다. ☺



플랜코리아 소식

성남고, 캄보디아에 세번째 '사랑의 우물' 지원

지난 2007년부터 캄보디아에 매년 두 개씩의 우물을 지어주고 있는 성남고가 올해도 세번째 사랑의 우물을 지어주었다.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35명의 성남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우물 완공식에 참석하였으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캄보디아에 지어진 우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물로 인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 기증식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온 학용품, 옷, 신발 등의 구호품 120박스를 전달하였고, 플랜 캄보디아에 구호기금 400달러를 전달하여 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다. ☺



삼성물산, 지구촌 빈곤아동 후원 협약식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지구촌 빈곤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9월 14일에 협약식을 가졌다. 삼성물산과 직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48개국 아동을 후원하여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편지교류 등 정서적인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삼성물산 지성하 사장은 '지구촌 빈곤 어린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과 지원을 하여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하였다. ☺



배우 고은아,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위촉

9월 15일 배우 고은아는 플랜코리아의 신임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고은아는 지난 4월 플랜코리아와 아프리카 세네갈을 방문하여 빈곤과 오염된 식수로 희귀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찾아가 희망을 전하였다. 이제는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지구촌 빈곤어린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고은아 홍보대사는 "내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저개발국 어린이를 돕는 일에 앞장서 세계 빈곤 아동을 돕는 '나눔의 국가대표'가 되기로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일시후원금				일반 모금함				자바씨티			
윤석민	40,000	정광미	5,000	포메인(서초점)	40,580	자바씨티 서현점	75,920				
송화석	50,000	정영미	9,200	간지소시	9,200	포스코점	49,770				
박지효	60,000	차석창	3,000	리베라호텔	50,630	태해관점	78,700				
정준호	10,000	조석희	20,000	푸하오	22,130	KTF 캠퍼스 플라자 강남점	104,600				
김정호	280,000	김조영	500,000	AGIO (홍대점)	118,330	청담 GE점	39,400				
전지훈	30,000	김인창	100,000	삼상레포츠센터	66,030	방배점	30,140				
전세화	30,000	임정희	40,000								
윤계욱	20,000	유승원	30,000								
대구성서아카데미	414,000										
이봉호	20,000			인한공항 조선호텔 일식당	124,960						
임한순	30,000			인한공항 조선호텔 다이닝 카페	112,140						
최해율	20,000			인한공항 조선호텔 푸드코트	47,890						
정영미	150,000			인한공항 한식당	229,010						
김은아	15,000			오피스브로이하우스	10,850						

특별후원자											
정수미	경상북도	문경시	김외숙	경상남도	진해시	박평화	서울특별시	영등포	김경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준수	경상남도	서천시	김보영	제주도	제주시	경은, 성화, 지호			심성희	서울특별시	서구
최병진	서울특별시	강사구	김복산	전라북도	군산시	김민경	경상남도	마산시	홍성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정윤	서울특별시	중구 무	김진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흥호	전라남도	광양시	안병도	경상북도	경주시
이환영			김종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하소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은숙	서울특별시	영등포
최해율	부산광역시	사상구	김인영	충청남도	천안시	김용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연하	인천광역시	계양구
최화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진순	강원도	원주시	이정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우인	서울특별시	중구 신
임한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박경남	경기도	파주시	황성하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영경	충청남도	보령시
장다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박화숙	경기도	화성시	이다은	경기도	고양시	이광현	전라북도	정읍시
홍현식	인천광역시	서구	신민수	경기도	고양시	서관석	광주광역시	북구	박부남	경상남도	마산시
황경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희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승현			김서영	경상북도	영천시
장철진	경기도	부천시	염명순			서명진			최유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황인숙	경기도	시흥시	오다현	충청남도	아산시	서성현			태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경임			유영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준이			도세영	대구광역시	북구
정민숙	경상남도	창원시	이동태			박은영	부산광역시	북구	대구성서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지분			이재형	대전광역시	서구	엄자성재연			나홍경	경상남도	통영시
강순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정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현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예진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박지현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내는 사람

사람 이름

Plan Be a part of it
피플 한가위 (舊養親會)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8-4
청우빌딩 2층

135870



한글학회의 우리

www.plankorea.or.kr

꼭칠하는 곳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Global DNA

새로운 생각으로, 놀라운 아이디어로, 세계를 연주합니다

창의와 열정으로 최고에 도전하는 “글로벌 가치 창조 기업” 삼성물산



삼성물산